



여 성불자가 앉아서 우리 가정,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불국토로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이 마련한 '제1회 불교여성지도자 워크숍'이 그것이다. 10월 20~21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21세기 불교의 희망, 여성리더의 사명과 비전 찾기'를 주제로 여성불자들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여성불자들의 고민과 해결책을 들어본다.

“사회 변화의 힘, 가정에서 나온다”

전국비구니회 교무부장 일법 스님과 불교여성개발원 특별자문위원 법성 스님을 비롯해 하도명화(재)불심홍법원 이사장 등 1·2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자들과 개발원 임원, 지역 불교여성지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21세기 여성불자의 역할'을 화두삼아 다양한 논의가 오고갔다.

그 첫 매듭을 풀기 위해 정중기 참여불교재가연대 사찰경영연구소 부소장의 '한국의 종교인구 변동현황' 주제 강의가 마련됐다. 정 부소장은 "우리나라 30~40대 인구의 불자 비율이 증가했다가 60대 이후에 다시 감소하는 이유는 불교가 불자들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돕고 있지 못하고, 불자들 스스로도 불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여성불자들이 앉아서 불교를 제대로 알고 굳건한 신심을 갖는 생활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성찰·나눔문화 체질화해야

박광서 교수(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역시 '여성불자의 사명과 비전'이란 주제의 강의를 통해 "여성불자들이 제 역할을 다 할 때 종교도 불교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매 순간 자기를 성찰하고 나눔의 문화를 체질화하는 것은 물론 사회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불교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정한 불국토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불자들이 '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의 토론 역시 여성불자들이 자신이 선 자리에서

“잘 믿고 실천하면 가정이 불국토됩니다”

불교여성지도자 워크숍 '여성 리더의 사명과 비전찾기' 모색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로 모아졌다. "가정의 종교는 어머니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들의 종교활동은 가족과 유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 종교 따로, 자식 종교 따로'라는 인식이 강하게 심어져 있는 탓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강요가 아닌, 여성 스스로 선행(修行)과 선행(善行)을 생활화함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김춘자 불교사영산회 회장)

'내 가족' 울타리 벗어나 사회에 관심을

"여성불자들의 잠재 역량은 매우 큼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를 개발·활용하려는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여성불자들이 개인의 생활활동에 매몰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 역량을 결집해 사회에 회향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백경인 동국대 교수)

"여성 개개인의 각성과 실천이 이뤄지지 못한 원인을 종단이나 사찰에 돌릴 것이 아니라, 여성불자들 스스로 불교를 올바르게 배우고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김경자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결국 개인의 '종교'로서만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여성불자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이날

발표한 '2010 비전'을 살펴보면 여성불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가정 종교는 어머니에 의해 좌우

불교여성개발원 한주영 과장은 "여성불자들의 인식과 생활 문화를 변화시켜 스스로 행복한 삶을 가꾸고, 가정 고단 사회에서 불교의 자비 평등사상을 구현해갈 여성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불교여성개발원의 목표"라고 말한다. 이러한 설립목표에 맞춰 2010년까지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초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교여성지도자를 양성해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여성들의 힘을 결집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교여성운동과 불교여성학 연구를 위한 기금도 조성해 여성의 사회활동 기반을 마련한다.

김인숙 원장은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여성의 시대라고 말한다. 이는 여성과 힘에 근거한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감정과 지식에 기반한 사회, 즉 '여성적인 패러다임'이 이끄는 사회가 열리는 것"이라며 "여성불자들 개개인이 가정과 일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21세기 불국토 건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글·사진=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37>

우영더덕 꿀꽂과 우영더덕 꿀차

현대불교 독자 여러분들은 가을이 되면 어떤 음식이 생 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전 당연히 송이버섯과 더덕, 우영과 연근, 토란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가을 산에서 나는 이 모든 식재료는 향으로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독특한 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이버섯이나 더덕, 연근, 토란 등은 예전엔 가을이 아니면 맛보지 못할 정도로 한철 잠깐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죠. 요즘엔 야생에서 재배가 꽤 흔해져서 맛볼 수 있지만, 그래도 가을에 나는 것들만큼 진한 맛을 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가 더덕을 처음 맛본 때는 10월이 지나가는 늦가을이었습니다. 제고향 대전의 작은 절에서 노스님께서 더덕으로 김치를 담그셨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니까 그때의 더덕은 지금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향이 진하고 독특했습니다. 물론 스님께서 직접 농사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빨간 고추장에 버무려 생으로 담근 김치는 매우면서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금 얻어온 더덕김치 때문에 제발걸음은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평소에는 겨울에도 보지 않던 식재료들이 사찰에선 맛있는 음식으로 변하는 경험을 저는 자주 합니다. 음식이란 것이 본래 그런 것이 아닐까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만드는 힘이 담긴 것이 바로 음식인 것 같습니다.

여름 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겨울을 따뜻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우영, 연근 등의 뿌리채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우영과 더덕을 이용한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만드는 법

<우영더덕꿀꽂과> 재료: 우영 30cm, 더덕 4뿌리, 검정깨 2큰술, 꿀 1큰술, 식초 약간, 설탕 1작은술

① 우영은 10cm 길이로 잘라 껍질을 벗겨 식초물에 잠깐 담궈둔다. ② 길이 5cm 짜리에 더덕과 우영을 넣고 찐다. ③ 굵은 체나 김판에 우영과 더덕을 건다. (우영과 더덕은 섬유질로 구성되어 감자나 고구마처럼 고운 가루가 나오지는 않는다.) ④ 간 더덕과 우영에 설탕을 고루 섞어 잘 저어준다. ⑤ 반쪽된 우영과 더덕을 섞어 환어온 후 실온에서 1~2시간 건조시킨다. ⑥ 환의 한쪽 끝에 꿀을 발라준 후 김장깨를 묻혀 완성한다.



<우영더덕꿀차> 재료: 우영 30cm, 더덕 5뿌리, 검정깨 2큰술, 꿀 1작은술, 소금 약간

① 우영은 껍질을 벗겨 어슷하게 썰어 냉수에 담가둔다. ② 더덕은 어슷하게 썰어 소금물에 담가 아린 맛을 낸다. ③ 우영과 더덕의 물기를 완전히 빼준다. ④ 병에 더덕과 우영, 검정깨, 꿀을 담아 밀봉한다. ※냉각기 포인트: 우영더덕꿀차는 7주 후부터 먹을 수 있다. 이때 건더기까지 다 먹으려면 우영과 더덕을 건져 먹어서 갈아서 섞어서 마신다.



▶ 다음 주에는 시래기 나물밥과 죽색 양채김치를 만들어 봅니다.

■ 박성희(사찰음식연구가)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 불자님의 기쁨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명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협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大후,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無生子)
사무실: 02)2677-5442
소연구원: 032)345-5411
휴대폰: 011)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여러분 아직도 레이키(Reiki 靈氣)를 모르십니까?

레이키는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가 발견하고 개발해 20세기 전반기에 약손요법, 기주입법, 기치료법으로서 일본의 대중사회에 일대 유행을 일으켰던 대체요법 보완요법의 체계입니다. 바로 기요법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1980년 부터 미국에서 붐을 일으키면서 전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한 후 현재는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국민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질병의 치료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레이키는 특히 여러가지의 심신상과성 질환과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내용
· 자기치료법 · 타인치료법
· 원격치료법 · 마음의 버릇 치료법
· 영성향상법 · 면역력강화법
· 동식물에 대한 기 주입법, 종합요법 등

▶ 교육 후 1개월 내외 무료복습 · 보충 교육제도 실시

인터넷: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레이키
현대생활레이키연구원(회장 박희준)
전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주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방향으로 10분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덜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담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기초 과정
● 전문기과정 ① 맥진반 ② 사암침술반 ③ 즉효요법반

▶ 내용: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배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2006. 11. 1부터 (월·화·수·목 주·이간반)
※ 일요일: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으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암침술학회

· 서울: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02)747-9136, 011-307-2975